

복음과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

복음과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



복음과 구원(구원의 영원한 보장)

발 행 일 | 2014년 10월 18일

발 행 처 | 진리침례교회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사진 | 안성식

디자인편집 | 김화영

〈비매품〉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본문: 롬1:1~4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죄의 형벌인 지옥을 면하게 된 것’ 이라고 구원을 인식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죽은 후의 복된 내세의 보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요일5:12)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1. 예수 그리스도 안에(in Jesus Christ) 있는 생명입니다.

① 요20:31 ② 요3:16 ③ 요일5:9~13 ④ 요17:3

2.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with Jesus Christ) 교제입니다.

① 고전21:9 ② 요일1:1~7 ③ 빌3:7~11

3.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for Jesus Christ) 섬김입니다.

① 롬12:1~2 ② 골3:24 ③ 롬1:9

4.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by Jesus Christ) 열매 맺음입니다.

① 롬7:1~5 ② 히12:7 ③ 벧후1:8 ④ 갈5:22~23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구원의 5단계

1단계 아담 안에 있는 죄인 - 그리스도 밖에 있음(without)

- ① 죄의 형벌이 위에 놓여있음
- ② 죄의 권능이 위에서 지배함
- ③ 죄의 임재가 안에 있음
- ④ 그리스도 밖에 있음
- ⑤ 죄인임. 소망이 없음

2단계 십자가에서의 죄인 - 그리스도와 함께함(with)

- ① 죄의 형벌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제거됨
- ② 용서가 허락됨
- ③ 칭의(의롭게 됨)
- ④ 의가 전가됨
- ⑤ 죄인의 과거가 가리워 짐

3단계 하늘의 처소에서의 믿는자 - 그리스도 안에 있음(in)

- ① 죄의 권능이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파괴됨
- ② 새로운 영역이 들어옴
- ③ 새로운 생명이 이식됨
- ④ 새로운 본성이 주어짐
- ⑤ 중생
- ⑥ 믿는 자의 현재. 확실함

4단계 땅위에서의 믿는 자 - 그리스도를 통하여(through)

- ① 죄의 지위가 생명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박탈됨
- ② 죄에 대하여 죽음

- ③ 율법에 대하여 죽음
- ④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음
- ⑤ 성화(거룩히 구별됨)
- ⑥ 믿는 자의 현재. 안전함

5단계 공중에서의 믿는 자 - 그리스도 같이 됨(like)

- ① 죄의 임재가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말소됨
- ② 그분의 모양으로 완전케 됨
- ③ 그분의 형상과 일치함
- ④ 영광스럽게 됨
- ⑤ 믿는 자의 미래. 변화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과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거나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우선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인 교육에서 나타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휴머니즘적 목표들이다. 디모데후서 3:16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대로 그건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기록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경의 주요 목적은 진리 그 자체,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즉 성경의 주요 목적은 믿음과 실행에 대한 모든 문제에서 성경 자체를 최종권위로 세우고,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 역사, 죽음과 심판에 대해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는 것이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3에서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 쓰인 교리들을 회피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자주 ‘나눔’(sharing)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만일 성경이 쓰인 첫 번째 목적인, 즉 성경의 교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설 방법이 없다. 본 과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훌륭한 교리들을 공부할 것이다.

이 과에서 논의하려는 주제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우리는 “성경이 회심(conversion)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부터 주제에 접근하기로 한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38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현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 중 다섯 가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거나 화평과 행복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그 밖의 몇 가지 피상적인 체험 외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38가지의 사실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한다. 자동차 모터가 작동 중일 때, 운전자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가 움직인다는 것만 인식한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훌륭한 예화이다.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단지 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뿐이지만, 많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된 믿는 자의 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바로 처음 거듭났을 때이다. 마귀는 새신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력하게 만들기를 매우 열망한다. 심지어 마귀는 죄인의 구원받고 성별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칼빈주의, 침례로 거듭남, “체험을 나눔”과 같은 것으로 미혹하여 성도를 어린아이 단계에 붙들어서 무력하고 열매 없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일단 움직이고 있는 차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1.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1)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 『그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엡2:18)

2)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된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갈4:5)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엡1:5)

3) 유업을 받게 된다.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행 26:18)고 말하고 있다.

4)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을 받는다. 사람이 한 번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는 선택받는다.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 받은 자들에게』(벧전 1:1,2).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엡 1:4). 아무도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택함받는 사람은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창조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이 없다. 결국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택함을 받는다.

5)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

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요일3:1)

- 6) 우리의 행실은 하늘의 방식이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3:20)
- 7)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갈3:29, 롬8:17)
- 8)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우리는 옛 성품 즉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로마서8:20에서는 창조물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므로 거듭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
- 9)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롬6:22)
- 10)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선정된 세대로 왕가의 제사장”이다(벧전2:9). 시몬 베드로는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벧전2:5)고 말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인 제물이 아닌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 11)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 외인들이며 …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2:12, 13, 롬5:10)

- 12)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다(고전 6:11). 사도행전 26:18에서 회심의 직접적 결과는 “성화”(sanctification)되는 것이다.

2. 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 13) 죄인은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엡1:6) 여러분은 이 구절이 여러 성경에서 변개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대의 모든 성경들은 이 말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변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워 버렸다. 짐작하건대 그 이유는 그들이 받아들여 진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14) 성도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데, 성령 침례는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는 것으로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이것은 은사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이 사도들인 양 가장하거나, 실제로 사도의 표적을 지니지 못했으면서 그것을 모방하거나,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과 같지 않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은 성령 침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 진다. 바울은 『너희 중에

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라고 말한다. 물론 이 침례는 결코 물침례가 아니다.

- 15)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롬 6:4a),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3:3)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며,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고, 영적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바 된다. 이 영적 침례는 사도행전 2:28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참지 못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의 길에 맞추어 성경을 바꾸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교리란 진리이다. 건전한 교리에 따르면 사도행전 2, 3,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으며,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교한 장소인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었음을 안다(행11:26).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시대에 사도행전 2:38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방인은 믿음의

약속에 의해 성령을 받았다(갈3:14).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안식을 지키고, 성전에서 경배하고 수염을 기르며, 돼지고기를 금하는 유대인임을 안다. 이 장의 전체 무리 안에는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다. 단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나 그렇게 불리는 이방인들뿐이다(행2:10).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시키기 위해 미국 남부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교파 중의 하나에서는 사도행전 2:1-3을 따르지 않는 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은사주의자), 또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행전 2:38을 따르지 않는 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단적 배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두 교파는 고린도전서 12:13, 갈라디아서 3:27, 그리고 로마서 6:4에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침례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 버린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신약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그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사탄이 일으킨 이들 이단 종파들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 16)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된다. 주 예수께서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요17:9)라고 말씀하셨다. 구원받은 죄인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다.
- 17)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행 16:31)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4:12)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 우리(그 자신과 성령님)가 그(성도)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요14:23) 『…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골1:27)라고 하셨다.
- 18)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요10:28a)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3, 요12:50; 17:2,3)
- 19)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7, 요14:27)

- 20)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요15:15)
- 21) 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다(눅10:20).
- 22) 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동료가 된다(빌4:3).
- 23)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엡2:6).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광스러운 집으로 가 있다. 비록 그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며 그의 몸 안에서 존재하고,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몸에 있는 집에 거하고 있으나, 그의 영은 거듭났고 성령님에 의해 중생(regeneration)하였고,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하였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캠벨주의자(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에게 와서 “죽어 보기 전에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다. 이에 나는 “나는 이미 하늘로 갔고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서요, 나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육신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글쎄요, 당신의 혼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데요”라고 반박했다. 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나의 몸에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주와 합하는 자마다 한 영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그의 살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

편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함께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연인은 사도행전 2장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고전2:14). 구원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24) 복된 소망을 받는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딤후2:13). 이것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망과 다르다. 그는 복된 소망을 받았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시리라는 소망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계22:20, 엡2:18)

25) 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된다. 요한은 『...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요일1:3)고 썼다.

26) 영광스러운 처소를 차지하게 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14:2)

이상의 26가지의 일들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혹은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

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경적 교리이다.

구원받은 후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이 들이대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구원받은 순간 그에게 일어난 26가지의 사실들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라. 가졌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 그 믿음에 근거해서 당신에게 제공하신 26가지의 축복을 받고서도,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4:13과 히브리서 6장을 당신에게 인용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도 많다.

3. 성령님과 관련해서

- 27) 그는 거듭난다(요3:3-7). 그러나 물침례는 신약 어디에서도 결코 새로운 탄생과는 관계가 없다.
- 28) 성령님에 의해 기름부음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요일 2:27). 그 기름부음은 우리 머리 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 29) 성령님이 그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요14:26; 16:13).
- 30) 그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에 의해 인침받았다. 『...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엡1:13)
- 31) 그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된다. 사도행전 2장을 사용하여 이러한

진리에서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는 무식한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19)고 꾸짖었다.

- 32) 그는 성령님에 의해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 은사들이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표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이스라엘과 만 맺은 특별한 관계를 그만두셨고, 사도의 표적들도 끝이 났다. 그런데 이들 표적들은 사탄에 의해 모방됐다(살후 2:9). 사도의 표적들을 흉내 내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불렸다(계2:2). 성경에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됨을 가르치고 있다(고전 1:22).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며(고전 14:22; 1:22), 성령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고후 11:3-8). 이런 진리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상한 체험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딤후4:3,4)

4. 죄와 관련해서

- 33) 구원받은 죄인은 용서받는다(눅7:48, 엡1:7, 골1:14)
34) 그는 의롭게 된다(롬5:1;4:5)

35) 그는 속죄함을 받는다.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5:9) 『...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고 말했다.

36)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세주로서 그분을 영접하면, 자기를 변호해 주는 변호인을 가지게 된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37)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롬6:12)

여러분이 이 위대하고 값진 약속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죄를 극복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5.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38)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고후 5:20)

또 우리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엡1:3)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믿는 모든 죄인에게 38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두 개의 이단적 그룹이 하는 일은 성경을 엉뚱하게 인용해서 이상의 38가지 사실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다.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엡2:18),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고(엡1:5, 갈 4:5), 유업을 받으며(행 26:18), 우리의 행실이 하늘의 방식이 되고(빌3:20), 하나님의 상속자요(갈3:29, 롬8:17),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며(고후5:17), 하나님의 종이요(롬6:22) 제사장이다(벧전 2:9).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롬5:10, 엡2:13) 거룩하게 되며(고전 6:11),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며(엡1:6),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으며(갈3:27, 고전12:13),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롬6:4),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나며(롬6:8), 그리스도께서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골1:27). 또한, 현재의 소유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요10:28, 요일5:13),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빌4:7),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눅10:20),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는다(엡2:6). 재림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딤후2:13),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요일1:3), 영광스러운 처소가 기다리고 있고(요14:2), 거듭나서 성령님에 의해 기름부음 받으며(요일2:27) 성령으로 인침 받는다(엡1:13).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엡1:7, 골1:14, 눅7:48), 의롭게 되고(롬5:1; 4:5) 구속함을 받으며(벧전1:18,19), ‘하나님의 의’를 분배받게 되고, 보좌 앞에서 변호인을 갖게 되고(요일2:1), 그날까지 죄를 이기는 승리의 가능성을 얻는다(롬6:12).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된다(고후5:20).

놀랍지 않은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리 높여 외치고 싶지 않은가!

형제여, 왜 이러한 사실들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당신이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작은 은사에 대하여만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어째서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서 믿는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38가지의 사실
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인가?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약속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확신을 주는 성경 말씀에는 다음과 같다.

- 1)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1:12)
 - 질문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 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10:13)
 - 질문: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
- 3)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일5:11-13)
- 4)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

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요4:10)

- 질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 질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 5)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6:37)

- 질문: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 6)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계22:17)

- 7)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 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45:22)

구원받는 것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낫 뱀을 바라봄으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아주 쉽다(민21:5-9). 이것은 죄인들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요3:14, 15)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요3:3)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8)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3:1-3)

-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 질문: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는가?

9)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요일3:14)

- 질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3가지 일들(과거, 현재, 미래)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그림들이 있다.

1) 아벨의 피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피의 희생 제물로 죽으실 것을 보여 주었다. 아벨은 믿음으로(롬10:17) 피의 헌물을 드렸다.(히11:4)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피 없는 헌물을 거부하셨다.(창4:1-5)

- 2)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밤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의 양 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발라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자가 죽었을 것이다(출12:1-13, 21-23).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헌물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
- 3)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매단 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즉시로 치유를 받았다(민21:5-9).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 나아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분을 부르면 즉시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신다. 주목: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100% 책임을 지셨다면(우리의 선행이나 종교가 아닌),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책임을 지신다. 그분께서는 이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들은 아래와 같다.

- 1)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10:28)

- 질문 1: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2)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벧전1:4, 5)

- 질문 2: 벧전 1장 4, 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지키실 것임을 보여 주는 5가지 사실들을 언급하라.

-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롬8:38, 39)

- 질문 3: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구원)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7가지는 무엇인가?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

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아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딤후4:18)

5)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일2:25)

- 질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6)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딤후1:12) 바울은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혼을 지켜 주시도록 그리스도께 맡겼다.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눅15:10)
만일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면, 천사들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 질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는가?

8)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a.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

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고전6:2,3)

- b.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전15:58)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그가 내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수고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타락할 지라도 그들이 받은 구원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 c.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고후4:14)
 - d.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고후5:1)
 - e.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일3:2)
 - f.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일5:13)
- 질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6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 9)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되어 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8:29)
- 10)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10가지 “SHALL BE”
- a.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y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골3:4)
 - b.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Much more then, being now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wrath through him.’ (롬5:9)
 - c.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For if by one man’s offence death reigned by one; much more they which receive abundance of grace and of the gift of righteousness shall reign in life by one, Jesus Christ.’ (롬5:17)
 - d.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But if the Spirit of him that raised up Jesus from the dead dwell in you, he that raised up Christ from the dead shall also quicken your mortal bodies by his Spirit that dwelleth in you.’ (롬8:11)

- e.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For I reckon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롬8:18)
- f.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Who shall also confirm you unto the end, that ye may be blameless i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고전1:8)
- g.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Behold, I shew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고전15:51)
- h.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킨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Knowing that he which raised up the Lord Jesus shall raise up us also by Jesus, and shall present us with you.’ (고후4:14)
- i.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and it doth not yet appear what we shall be: but we know that, when he shall appear,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요일3:2)

j.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Know ye not that we shall judge angels? how much more things that pertain to this life?’ (고전6:3)

11)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13:5)고 약속하셨다.

12)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전12:27)

- 질문 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해체되도록 허락하실까? 결코 아니다!

- 반대: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에, 밖으로 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인가? 답변: 아니다! 왜냐면

a.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히12:5-8)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영속성(permanence)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히12:7)

- b. 죄를 짓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 깨끗한 양심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이름에 대한 간증을 상실하게 되며, 다른 이들이 우리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c. 죄에 대한 영원한 결과는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되며(고전3:15),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고후5:9),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요일 2:28)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

By Keith piper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구절들이 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성경적 교리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성경공부와 해석의 기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를 조화롭게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부분들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구절의 의미가 성경 전체와 모순된다면 우리는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한다.

- 질문: 왜 사람들은 앞으로 소개하는 다음의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 대답:

- ① 어떤 구절들은 믿는 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 ② 어떤 구절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취해졌다.
- ③ 어떤 구절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 주목: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기에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분명하지 않은 성경 구절들을 붙들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던져 버려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한 구절들을 찾아 정리해보자.

1. 겔 3:20; 18:4; 33:13,18절은 율법의 경륜 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 a) ‘그가 죽으리라.(he shall die)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he shall die in his sin)…’ (겔 3:20)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의의 길에서 떠나면, 그는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사람은 다가오는 바빌론의 심판에서 보호받게 되지만, 율법을 어겼던 자들은 죽음을 예상해야 한다.

- b) ‘…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he soul that sinneth, it shall die.)’ (겔18:4)

문맥에 주의하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거니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겔18:2)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속담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이 자신의 죄들이 아닌, 조상들의 죄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을 불의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이 거짓임을 반박해야 하셨다. 죄의 결과들은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들로 인해 무죄한 자식들을 징벌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 자신의 죄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혼, 그 혼이 죽을지니라.’

고 응답하신다. 이것은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에 응당한 징벌(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다.

c,d) 에스겔 33장 13절, 18절은 파수꾼으로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두 번째 위임을 받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B.C 587년) ‘... 그는 자기가 행한 불법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committeth iniquity, he shall even die thereby)’ 이 죽음은 각 개인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이었으나, 그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였다. 겔3장 1-21절에서 B.C 595년에 받았던 첫 번째 위임은 심판의 사역이었는데, 지금 완성되었다.

결론: 이 구절들은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영적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인이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들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을 심판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마24:13)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7년 환란 동안의 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그 7년이 끝나는 때까지 견디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혼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멸하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3.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 (마22:11-13) 이 비유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식(혼인잔치)을 준비했던 왕에 대한 것이다. (마22:1-4)

- 1) 혼인 잔치 =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돌아오실 때 시작하는 천년 왕국 시기
- 2) 혼인 예복이 없는 사람 =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 3) 바깥 어둠 =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 밖의 어둠으로 던져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은 혼인 예복이 없는 이 사람처럼 이 땅에서 취해져 바깥 어둠으로 던져질 것이다. (마13:41, 49; 3:12; 25:30, 41-46; 24:37-41)

4.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 25:10-12)

어떤 이들은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 1) 혼인 잔치 =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시작되는 천년 왕국 시대

2)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 구원받은 자들

3)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롬8:9) 또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I never knew you)’ 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마7:21-23절을 보라.

5. 세 종의 비유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하니라.’ (마25:30)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지상 왕국은 빛과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바깥 어둠에 던져 진다는 것은 왕국에서 밖으로 즉 죽음이 있는 어둠으로 던져질 것을 뜻하는 것이다. ‘종’이라는 단어가 항상 신자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책임이 있다. 예) 경건치 않은 왕들 처럼(렘25:9),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롬13:4) 바깥 어둠에 던져진 그 종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불신자를 상징한다.

6.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벧후3:17)

이 말씀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굳건함으로부터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굳건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생각이 경고한 상태’를 뜻한다. 구원받았지만, 생각이 굳건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구절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다.

7.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지니라.’(고전10:12)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자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8.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요15:1-6)

이 구절은 실례를 든 것이다. 문제는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a)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 =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

b)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것 =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깨짐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구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 문제와 부딪힌다.

1) **그분께서 제거하시고(taketh away 15:2)**


이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은 그 자리에서 위로 들려진다는 뜻이다. 제거하시고(Taketh away)라는 말은 ‘땅에서 들려진 (lifted up from the ground)’ 이라는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를 하늘로 옮기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이라는 최후의 징계이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가지이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든 둘 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깨끗하게 하사(purging)라는 단어는 곤충이나 기생충, 이끼를 씻어 냄으로써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씻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요15:3)

2)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요15:6)**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밖에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공적인 간증을 거부할 것이며,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력은 점점 더 메말라 갈 것이다. 그는 고전9:27절 말씀처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역을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와 같다. 타락한 자들은 모두 자신의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메말라 가고 있다.

3)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요15:6)

복수 대명사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들을(they, them)’에 주목하라. ‘사람들이 그를(him) 모아, 그를(him) 불속에 던져, 그를(him) 태우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 말씀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professor)을 언급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로 되어 있다. ‘그것들을’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지처럼 밖에 던져진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 즉 나무나 쥔, 건초와 같은 죽은 행위들을 말하며, 그러한 것들은 고전3: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태운다는 ‘burned’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  ‘그것들을(they, them)’이라는 복수 대명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태워질 신자의 죽은 행위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9.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일2:24-25)

만약 신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의 거짓말에 저항하고, 처음부터 들은 성경의 진리를 그들 안에 거하게 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는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것(that)은 성경의 교리를 언급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될 것이다.

10. 이기는 자란 말은 무슨 뜻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계2:11) 성경에서 이와 비슷하게 사용된 다음의 용례를 살펴보자. 계2:7, 17, 26; 3:5, 12, 21절을 보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도 범해서는 안되며, 또는 선한 행위들을 반드시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은 요일 5:4,5절에 나와 있다. 이 구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거듭난 신자이다.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구절들은 오히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들이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1.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3:5)

혹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수도 있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구절엔 어떤 이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다. 요일5:4, 5절에 따르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다. 이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모든 신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구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12.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3:15)

이 구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들이 심판받는다. 어떤 이들은 보상을 받고(고전3:14) 어떤 이들은 손실을 입는다.(고전3:15)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구원받는다!

13.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들 가운데 하나인 생명의 왕관을 말하고 있다. 이 왕관은 시험을 견딤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약1:12)

14.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冠)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3:11)

관은 영생이 아니다. 그러나 보상은 신실하게 섬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이 건전한 성경의 교리를 붙들지 않고 속임수와 죄악 그리고 거짓 교리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잃을 수 있다.

15.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

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고전11:28-29)

정죄(damnation)라고 하면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징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30, 31, 32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여기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내용이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16.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딤후5:12)

정죄는 영원한 지옥에서가 아닌, 이 생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의미한다. ‘정죄를 받느니라.’에서 ‘having’은 현재시제이다. 지옥에서 받게 된다는 미래 시제가 아니다. 웨스트(Wuest)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동료 크리스천들로부터 수치스러운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이 구절은 재혼하지 않기로 서원한 젊은 크리스천 과부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결혼했기에, 그것은 서원을 깬 것이 된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17.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딤후4:10)

데마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바울의 동료 일꾼이었지만,(골4:14 ; 몬24) 슬프게도 타락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어떤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의 쾌락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아무 열매 없는 무익한 자가 되게 한

다.

18.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요일5:16)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들 가운데 어떤 죄들은 죽음으로 바로 징벌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신속하게 육체적 생명을 취해가시는 경우도 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19.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전9:27)

버림받는다(castaway)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disapproved)는 뜻으로 헬라어 아도키모스(adokimos)이다. 즉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아무 쓰임도 받지 못하고,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운동선수가 그 팀의 명단에서 제외된 것처럼) 헬라어로 도키모스(dokimos)는 “증명된(proved)”을 뜻하는데, 롬14:18; 16:10; 고전11:19; 고후10:18; 약1:12; 딤후2:15절에서 사용되었다.

20.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갈5:1-3)

속박의 멍에는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일 갈라디아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할례의 의식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력들(effects)을 스스로 박탈(deprived)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고,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게 된다.

2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5:4)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은혜가 계속 역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유 가운데 살라는 호소라 할 수 있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갈라디아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는 의미이다. 이 말씀의 문맥은 구원이 아닌, 성령님의 거룩케 하시는 사역이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 이 말씀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다. 갈5:22, 23절은 성령 안에서 걷게 될 때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를 묘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 갈라디아 크리스천들은 매일 매일의 삶에 필요한 은혜(고후12:9)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그들 스스로 빼앗겼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표현된 것이다.

22.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히 2:1-3)

구원을 소홀히 여기려면, 먼저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크리스천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 남자의 아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소홀히 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과과의 교제와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 그들은 또한 이생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정당한 보응의 대가’)

23. ‘형제들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히

3:12)

이 구절은 타락에 대한 경고로 그리스도인들(형제들)에게 쓰인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 준 것처럼, 완악하고 믿지 않는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의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히3:13)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이 아니다.

24.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히4:1)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안전하게 그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쁨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삶, 축복의 삶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 이미 그들의 것으로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엡1:3)

25.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히6:4-8)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이다.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축복과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오직 불살라지기에 합당한 행위들을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의 문맥을 주목해 보라.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믿지 않는 불신으로 인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들 앞에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시리라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로 열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사체가 광야에 쓰러질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히3:17)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불신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을 상징한다. 가나안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비록 승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여전히 갈등과 싸움이 있는 투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가나안은 신자들에게 있어 승리와 축복 그리고 안식이 있는 영적 성숙의 장소를 상징한다.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신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

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해서 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젖)을 떠나 완전함(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권면을 듣게 된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로 하여금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두려운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듣는 것이 둔하고 젖만 먹어야 하는 크리스천들, 영적인 아기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운 경고가 필요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때가 온다.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칭의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돌보셨다. 계속해서 만나로 먹이시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자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갔더라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축복들을 비록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에 주목해보라.

- 1) **한 번 빛을 받고(4절)** 빛을 받았다는 말은 히10:32절에서 조명을 받았다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된다. 엡1:18을 보라.
- 2)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 이것은 단지 구원을 맛본 정도가 아니다. 또는 구원의 문턱까지 간 정도가 아니다. 히6:4,5절에 나오는

맛보았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히2:9절에 사용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의 맛만 보셨는가? 아니면 그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셨는가? 후자가 확실하다. 행10:10; 20:11; 23:14절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먹다’ 라고 번역되었다. 그 단어는 또 한 ‘경험하다’ 로 번역될 수 있다.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경험했다. 마16:28절을 보라.

- 3) 그들은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한 자라는 단어가 히3:1절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로, 히3: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 로, 히12:8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징계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롬8:9)

- 4) 그들은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 (히6:5)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해 적어도 어떤 열매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6절은 신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문맥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영적 성숙(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주제가 된다.(4절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for’ 라는 단어는 그 구절들을 함께 연결해 주고 있다.) 그들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열매를 질식시키고 있다.

5)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히6:6)

여기서 구원이 아니라,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회개의 뜻은 ‘생각의 변화’이다.

i)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인격),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사역)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다.

ii)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회개할 때, 칭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것이며(고전11:31-32)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게 될 것이다.(고후5:10)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명백히 어떤 시점이 있는데, 자신이 비록 영적 성숙을 열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시점이 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어떤 시점이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주님의 백성이며, 그분께서는 그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상징된 안식에는 들어갈 수 없다.

히 12:16-17절에서 에서라는 하나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소중하게(value)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상실했으며, 그것을 눈물로 원했지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자신의 영적 출생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속화의 결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비록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구하지만, 다시는 뜻을 돌릴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다시 얻지는 못한다.

히 6:7-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채소를 내는 땅을 사용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을 사용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쓸모 없는 것만을 생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마13:1-23; 막 4:1-25; 눅8:4-15)에 나오는 두 종류의 땅과 유사하다. 좋은 땅은 많은 열매를 내지만(마13:23), 가시가 있는 땅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마13:22)

6)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히6:6)

크리스천의 믿음을 버리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했던 원수들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교로 되돌아간 타락한 유대 신자들이다.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그 순간으로(회심으로)가 아님) 되돌리려는 모든 노력들에 대해 그들은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반응한다.

7)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히6:8)

- 질문1) 어디에서 가시와 찔레가 나는가? 답:흙

흙(신자)은 불로 멸망하지 않는다. 원치 않았던 가시와 찔레가 불

살라진다.

- 질문2) 무엇이 불살라지는가? 답: 가시와 찢레

버려졌다는 것은 헬라어로 ‘adokimos’ 인데, 그 뜻은 버림받는 것 (castaway 고전 9:27) 또는 쓸모 없게 되는 것, 하늘의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크리스천이 해한 모든 일들은 불로 시험을 받을 터인데(고전 3:13), 만일 그의 행위들이 불태워지면 보상을 잃게 되고, 그의 행위들이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게 된다.

요15:6에서도 불태워지는 신자의 쓸모 없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히6: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독자들이 히6:4-6절에 있는 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들 것 구원에 동반 되는 것들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론

히6:4-6절은 박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의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의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아직 성전에서의 경배가 계속되고 있었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었다. 유대교는 계속해서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유대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새로이 십자가에 못박고 있었다. 이 구절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26.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격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히10:26, 27)

이 말씀은 믿음의 변절에 대한 경고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죄를 고의로 짓는다.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sins of presumption 민15:29-31)는 율법의 희생 제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믿음에서 떠난 배교는 죄에 대한 어떤 희생 제사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런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주목: 만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맹렬한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배교자가 피할 수 있는 어떤 희생 제사도 남아 있지 않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히10:28-31)

모세의 언약을 거역했을 때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임했다면, 그 언약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언약을 거역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징벌이 임하겠는가?

-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것

이러한 영적 반역은 모세의 율법하에서의 죽음의 형벌보다 훨씬 더 극심한 징벌을 필요로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형태의 징벌들이 즉각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 1) 예레미야는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은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크도다.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였고 어떤 손도 소돔 위에 머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말했다.(애4:6)
- 2)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밭의 열매가 부족하므로 이들이 타격을 받아 쇠약해지는데도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애4:9-10)
- 3) 사울 왕의 최후를 기억하는가! 그날 그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기에, 자살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징벌을 단지 가벼운 위협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셨다. (히10:30)

27.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히10:35) 크리스천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

28.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10:38)

만일 크리스천이 뒤로 물러가면(타락하면), 그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주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그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39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고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것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은 아니다.

29.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 (제22:19, 20)

1) (출32:32-35)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2) (시56:8)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3) (시69:28)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4) (시139:16)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5) (단12: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 6) (말3:16)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 책을 기록하셨느니라.”
- 7) (빌4:3) “또 참된 명에 동료인 네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 8) (계3:5)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 9) (계13: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 10) (계17: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닷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 11) (계20:12)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 12) (계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13) (계21:27)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14) (계22:19)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주목

i.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a) 오늘날 신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빌4:3)

b) 신자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눅10:20)

c) 처음 난 자들의 교회로서,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히12:23)

d) 환란 기간에 이기는 자들은 이름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계17:8)

ii. 이름들이 생명책에서 지워 질 수 있다.

a) 모세는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출32:32)

b)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시69:28)

c) 사데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계3:5)
그러므로, 많은 이름들이(모든 사람의 이름은 아닐 지라도) 원래

생명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게 될 때 결국 이름들이 지워지게 된다. 신자들의 이름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 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 iii.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यो,’(마10:32 ; 눅12:8)

결론

계22:19절은 참된 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함부로 손대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이다. 계3:5절은 신자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요일5:4, 5) 어떤 이들은 생명책을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으로서가 아닌, 이제껏 육체적 생명이 있었던 모든 인간, 즉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자들의 목록으로 보았다. (육체적 생명이 있었던 모든 인간이)그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의 때에 이르게 된다. 끝내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원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확정된다. 나는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

3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롬11:20-21) 로마서 11장 전체를 읽어 보라

- 질문: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 대답: 롬11: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고 기록하고 있다. 본래의 가지들은 유대인들인데, 불신으로 인해서 꺾이게 되었다.(롬11:20)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제공되었다.(롬11:12) 여기서 경고하는 대상은 개별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다. 천년 왕국 기간에, 이방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처럼 잘릴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31.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5)

등잔대를 옮기신다는 경고는 크리스천이 아닌,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에 대한 것이다(계1:20). 교회들이 느슨해져서 타협적이 노선을 취하게 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통제하도록 허용할 때, 등잔대가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32.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계3:15)

이 경고도 개별적인 신자가 아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것이다.

계3:20절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이다. 구원의 영원한 보상은 지역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크리스천 각 개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33.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전15:1-2)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것을 기억함으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 이미 성취된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는 삶 속에서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매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어떻게? 말씀 선포를 기억함으로써!

- 고전 15:1절은 완료 시제(has received)로서 그들이 받았고 그 가운데서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나타낸다.
- 고전15:2절은 구원의 현재 시제이다.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By which also ye are saved,’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
-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씀은 ‘만일 너희의 믿음이 실제적이지 않다면, 즉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라는 뜻이다.

34.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빌2:12)

이 명령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고, 은혜 안

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성화의 내용으로 구원이 현재시제로 주어졌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성숙을 촉구하고 계신다.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어떤 암시도 없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이 명백하게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그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쳤고, 격려했으며, 도전을 주었다.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바울은 그들의 성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요일3:3은 모든 신자에게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땅을 경작하라는 뜻이다.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실행하라는 뜻이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이 아닌,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이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구원의 세세한 것들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면서 드러내라는 뜻이다.

35.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딤후4:16)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과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현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건전한 교리 안에 계속 거함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거짓 교리와 불신 그리고 오류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네 자신을 구원하

라는 말씀은 거짓 교리와 육신적인 성향으로부터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뜻이다.

36.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요17:12)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가 한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절이라고 말한다.

답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지켰다고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요6:39)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요18:9)

유다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요6:6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둘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요6:70-71)

유다는 열두 사도중의 하나로 선택 받았지, 구원으로 선택 받은 것은 아니었다. 요17:12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키신 자들의 예외적인 인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키신 자들과 대조되어 묘사되고 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가운데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잃어졌다.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행1:25) 유다는 공적인 사역과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는 한 번도 결코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37.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6:66)

참된 신자가 타락해서 주님과 교제 밖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교제의 상실은 곧 구원의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38.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딤후6:12)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말씀은 디모데가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더 많이 경험하기를 바울이 원했음을 뜻한다. 그리스에서 벌어진 운동 경기에서 경쟁 선수들이 승리의 영광을 바라는 것처럼, 승리의 왕관을 간절히 구하고 붙잡으라.

39.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딤후6:19)

부유한 자들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붙들고, 단지 이생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라.

40.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12:14)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벧전2:9)

히 12:14절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거룩함을 고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떤 죄도 있을 수 없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볼 때 그분과 같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죄는 없어질 것이다.(요일3:2)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자.

41. ‘부지런히 살피 하나님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돌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히12:15)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맑은 정신

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역사를 지속한다.(딤후 2:11, 12) 어떤 신자들은 너무나 죄와 시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시기, 쓴 뿌리, 분노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들은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 안에 있는 쓴 뿌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그들은 끊임 없이 은혜 안에서 행동하지 못한다.

42.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골1:22-23)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거해야만**”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만일(if)’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which is taken for granted)**’을 뜻한다.

답변 1: 22, 2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될 것이다. 만일(if-since, or it is taken for granted):

-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만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성(certainty)**이다. 이 구절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크리스천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답변 2: 만일 우리가 믿음(건전한 성경 교리)안에 계속 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제시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건전한 교리의 믿음 안에 계속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보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주제는 보상에 대한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43.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써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3:6)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만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거짓이다.

답변: 왜냐하면 히3: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그분의 온 집(성막)에서 신실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훈계의 범위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 5절에 나오는 모세의 집은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영역이었다.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집은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히3: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아들이 계시는 집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자들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신자가 히 3:12절과 같은 그러

한 일을 행한다면, 아들이 계신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박탈당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조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에 굳게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체계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레위인이 모세의 성막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참된 크리스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44.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약 5:19-20)

여기서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거나 타락한 신자를 말한다. 인내하는 가운데 그런 자를 찾아가 다시 그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일은 그를 하나님의 징계인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어 주거나, 예방 해 줄 것이다. 그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 더 많은 죄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존된 것이다.

45.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

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딤후4:1-3)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father’s)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개인적인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믿음에서라는 말은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교리 체계로서의 믿음을 뜻하지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았다.

46.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 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벧후2:20-21)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구원 받는데 있어서 지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젖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희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더 깊은 부패(엡매임)와 더 가혹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많은 자녀들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양육되었고,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운 종교적인 자들이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많은 외적인 오염으로부터 피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거부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들은 이전에 의의 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상태가 나빠질 것이다. 베드로는 개와 돼지를 사용해서 진리를 알았으나 그 진리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개는 거

짓 교사를 상징하고, 돼지는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지만 계속해서 흙(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본성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자를 상징한다. 억제하는 손길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그가 한 때 살았던 오물통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벧후 2:22) 개와 돼지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다.

47.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딤후1:6)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 헛된 말다툼에 빠진 크리스천들을 언급하고 있다. 헛된 말다툼은 아무 의미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헛된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짓 교리에 빠진 신자들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주입시키려는 신자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48.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중에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딤후1:19-20)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 **믿음을 붙들라**는 말은 군사로서 크리스천의 믿음에 신실해야 함을 뜻한다. 그는 참된 교리를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
- **선한 양심**은 올바른 것을 정직하게 따르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파선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파선하는 것이다. 신실하게 남아 있다는 것은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파선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리고 참된 교리로부터 떠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사탄이 불순종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 교리를 믿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교리들)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구원은 받았다.

49.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중에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엎느니라.’ (딤후2:17-18)

후메나오와 빌레도는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거짓 교리들을 믿을 수 있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믿음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은 참된 교리로부터 떠난다는 뜻이다.

50.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고후6:17)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독특한 백성이고 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나오라는 뜻이다.

‘나와’ (사 52:11)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떠날 때, 바벨론의 우상들로부터도 함께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분리하고’ - 부패시키는 모든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 “우상 숭배 등으로부터 순결하라”는 뜻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 이 말은 “내가 너희와 교제를 즐길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 이 말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면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불순종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분리하는 자들만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가르친다. 구별된 삶에 대한 권면은 바로 앞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16절 ‘너희는 살아가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러므로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신자의 영원한 보장에 근거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어떤 위협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라고 약속하신다. 여기에는 ‘만약’이라는 어떤 조건도 없다.

51.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딤후2:12)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기에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의미로 가르친다. 그러나 여기서 부인하여(deny)라는 단어는 ‘억누르다. 보류하다(to withhold)’ 라는 뜻이다.

만일 우리가 섬김 및 교제에서 그분을 부인하면(withhold from Christ -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면), 그분께서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과 기쁨 그리고 달콤한 교제를 부인하실 것이다.(withhold from us -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라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 자기 자신과 디모데를 포함시키고 있기에 이 말씀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다. 그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12절의 문맥은 고난에 대한 것이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고난 받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음.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그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그를 꾸짖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다루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축복과 보상과 하늘의 특권들을 부인하실 것이다.

-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यो,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 10:32-33)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막8:38)

우리는 지상에서의 즐거움과 하늘의 특권들을 부인함으로써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 | 제 목 | 저 자 | 면 수 | 가 격 |
|----|---------------------------|-----------------|-----|-------|
| 1 | 고통과 함께 하는 삶 | Samuel C. Gipp | 104 | 3500 |
| 2 | 성령의 열매 | James W. Knox | 368 | 12000 |
| 3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 L.E. 맥스웰 | 240 | 8000 |
| 4 | 성장을 위한 첫 걸음 | Linton M. Smith | 480 | 15000 |
| 5 | 일곱 교회 | James W. Knox | 44 | 1000 |
| 6 | 확실한 기초 | James W. Knox | 280 | 8000 |
| 7 | 성령 침례 | James W. Knox | 28 | 1000 |
| 8 |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 James W. Knox | 220 | 8000 |
| 9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 James W. Knox | 40 | 1000 |
| 10 | 신유와 적그리스도 | James W. Knox | 40 | 1000 |
| 11 | 성경 연구 방법 | James W. Knox | 224 | 8000 |
| 12 | 교회의 휴거 | Linton M. Smith | 48 | 1000 |
| 13 |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 James W. Knox | 64 | 1000 |
| 14 |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 James W. Knox | 64 | 1000 |
| 15 |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 James W. Knox | 28 | 1000 |
| 16 | 큰 흰 왕좌 심판 | James W. Knox | 28 | 1000 |
| 17 | 기독교의 본질 | James W. Knox | 96 | 1000 |
| 18 | 설교의 준비와 전달 | James W. Knox | 88 | 4000 |
| 19 | 청지기 | James W. Knox | 40 | 1000 |
| 20 | 하늘나라와 지옥 | James W. Knox | 224 | 8000 |
| 21 | 하나님의 뜻 | James W. Knox | 40 | 1000 |
| 22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 James W. Knox | 28 | 1000 |
| 23 |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 James L. Melton | 28 | 1000 |
| 24 | 성경과 술 | James W. Knox | 28 | 1000 |
| 25 | 쉬운 복음 쉬운 전도 | James W. Knox | 144 | 5000 |
| 26 |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 James W. Knox | 64 | 1000 |
| 27 | 거룩한 여인 | James W. Knox | 60 | 1000 |
| 28 | 다시 태어났습니까? | H.E.M. | 32 | 1000 |
| 29 | 교회에 관한 교리 | James W. Knox | 448 | 15000 |

| | 제 목 | 저 자 | 면 수 | 가 격 |
|----|-----------------------------|------------------|-----|-------|
| 30 |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 Jeffery Tibbetts | 96 | 4000 |
| 31 |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 이우진 | 40 | 1000 |
| 32 | 교회와 대환난 | James W. Knox | 108 | 4000 |
| 33 |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 James W. Knox | 36 | 1000 |
| 34 | 세대주의 재고찰 | James W. Knox | 324 | 12000 |
| 35 | 구원의 영원한 보장 | James W. Knox | 128 | 5000 |
| 36 |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 James W. Knox | 56 | 1000 |
| 37 | 하나님의 말씀 | James W. Knox | 50 | 1000 |
| 38 | 가장 큰 명령 | James W. Knox | 42 | 1000 |
| 39 |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 James W. Knox | 180 | 7000 |
| 40 |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 James W. Knox | 40 | 1000 |
| 41 |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 Keith Piper | 32 | 1000 |
| 42 | 신약 생활 원리 | Norman Harrison | 96 | 4000 |
| 43 | 합당한 헌신 | James W. Knox | 32 | 1000 |
| 44 | The Essence of Christianity | James W. Knox | 28 | 1000 |
| 45 | 예수님 나의 예수님 | 이우진 | 48 | 1000 |
| 46 | 영원을 준비하는 삶 | 이우진 | 28 | 1000 |
| 47 | 성경의 기초들 | Brent Logan | 100 | 4000 |
| 48 |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 James W. Knox | 28 | 1000 |
| 49 |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Keith Piper | 28 | 1000 |
| 50 | 셋째 출생 | James W. Knox | 32 | 1000 |
| 51 |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 Keith Piper | 32 | 1000 |
| 52 | 결혼과 가정 | James W. Knox | 288 | 10000 |
| 53 | 구원의 조건 | George Parson | 110 | 4000 |
| 54 | 예수님과 성경 | James W. Knox | 140 | 5000 |
| 55 | 두 본성 | George Zeller | 60 | 1000 |
| 56 |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 Terry Watkins | 60 | 1000 |
| 57 | 거리 설교의 유익 | James W. Knox | 52 | 1000 |
| 58 | 레위기 개요 | James W. Knox | 48 | 1000 |
| 59 | 히브리서 연구 | M. R. De Haan | 336 | 12000 |
| 60 | 천년왕국 | Keith Piper | 36 | 1000 |

| 제 목 | | 저 자 | 면 수 | 가 격 |
|-----|-------------|----------------|-----|-------|
| 61 | 창세기 주석 | James W. Knox | 536 | 18000 |
| 62 |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Samuel C. Gipp | 168 | 6000 |
| 63 | 두 홍수(간극이론) | James W. Knox | 32 | 1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 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4년 10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